

‘쇠고기 심판’ 재보선 후폭풍

“대폭 개각 쇠신·재협상 피할수 없다”

與 “제2의 6·29 선언 버금가는 조치 필요” 野, 강공 드라이브...18대 국회 개원 무산

쇠고기 파문 이후 맞은 6·4 재·보선의 후폭풍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참패를 당한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향해 고강도의 국정 쇠신을 주장하는 한편 대선 관련 고소·고발 취하로 정국 경색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야권은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여권을 더욱 압박하며 쇠고기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5일 한나라당에서는 쇠신과 쇠고기 재협상으로 새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우선 대폭적인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졌다. 또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각종 실정(失政)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제2의 6·29선언’에 버금가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 출발의 의지를 보였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재보선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요새 진짜 배우는 게 많다”며 “인적쇄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세요. 민심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해야죠”라며 대폭 물갈이를 촉구했다. 이 같은 강한 발언들은 청와대를 향한 직격

탄으로 과감한 인적쇄신과 쇠고기 재협상 없다는 정국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대선 관련 고소·고발을 전격 취하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와 사전협의 없이 내린 결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BK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보부당한 지분이었기 때문에 이명박계 의원들이 강력, 반발한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명박계 의원들은 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물러가 “그러시면 안되죠”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정두언 의원 등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으며 전여욱 의원 역시 의총장을 황급히 떠나려던 강 대표를 따라가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이처럼 자중지란 속에서 비상구를 찾기에 부심하는 사이 야권은 재보선 민심을 기반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대외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태도다. 통합민주당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이날 광주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가졌으며 개별 의원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입장시켰으나 야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18대 국회는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 120여 명은 이날 단독 등원했으나 개원행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통합민주당은 5일 오후 6시 광주공원에서 ‘미 쇠고기 재협상 실시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손학규, 박상천 대표를 비롯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美업자들에 구걸한 것이 재협상인가”

野 3당 재협상 촉구 결의문 민주, 광주서 장외 규탄대회

야권은 6·4 재보선 선거를 계기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확인됐으며 대외(對美)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5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국회 개원이 예정됐던 이날 등원을 거부하고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당은 결의문에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쇠고기 재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시 결의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재협상 선언 ▲내각 총사퇴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심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반됐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대외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광주에서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정세균·추미애 등 당권 도전자, 김성곤·김영진·박주선·이낙연·이음섭·조영택·주승용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7일에도 부산

에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이 BBK 사건을 포함한 대선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 것과 상관없이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손대표는 광주 규탄대회에서 “정부가 밝힌 민간 자율규제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재협상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 방명록에 “몸을 던져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어 대외 투쟁의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의 청계광장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당직자들의 촛불집회 합류도 지속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위생조건을 단 한 줄도 안고치고 미국 업자들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구걸하는 것이 재협상인가”라며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기만하는 여당을 믿고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뭘 내놓은들 먹히겠나”

청와대 정국 쇠신 묘책찾기 고심

청와대가 국정쇄신책의 묘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6·4 재·보선’에서 드러난 심판 민심을 가라앉히면서 자칫 야기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집권 100일 이후 재발진을 위한 진용을 갖추 수 있는 만능처방식 쇠신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민과의 대화를 당초 9일로 잡았다가 무기 연기하는 등 쇠신책 공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쇠신책을 놓고 절박감이 묻어난다. 현 국면을 일거에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계속 수세에 내몰리면서 정상적인 국정 추진의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이 끝내기 수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론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야권은 내각 일괄 사퇴를 내걸며 장기화를 피하고 있

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고강도 쇠신의 목소리가 드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몇 명 자른다고 사태가 수습되고 상황이 해결되겠는가”라며 “또 다시 ‘부족하다’, ‘정신 못차렸다’고 나오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뭘 해도 먹히기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각을 한다 하더라도 18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도 제약적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중순께 인사들을 필두로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적절한 범주의 쇠신책을 내놓는, 결단에 앞선 수순의 일환이다. 불교(6일), 개신교(7일), 천주교(9일)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이어 학계, 정계 인사들과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한나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민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 6·4 재보선 반응

6·4 재보선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질책을 견디며 받아들이겠다고 머리를 숙이며 망연자실해 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대외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한나라당=9개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단 한곳에서만 승리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대패하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시민 국민의 뜻을 겸허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받들겠다”면서 “선거 결과를 국민의 진실 어린 질책이라고 여기고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여당을 믿고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선거는 애초부터 선거가 발생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고, 여기에 쇠고기 정국까지 겹치며 결집할 수 없게 됐다”면서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어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민주당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표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2005년 이후 재보선 ‘연전 연패’, 대선과 총선 참패의 악몽에서 벗어났으나 민주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쇠고기 정국’에 의한 반사이익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마냥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더 잘하라는,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라는, 야당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책적이자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p>무인 - 상해</p> <p>상해(상해) 1호주 4일 479,000원</p> <p>상해(상해) 2호주 3일 889,000원</p>	<p>무인 - 대만</p> <p>대만(대만) 1호주 4일 689,000원</p> <p>대만(대만) 2호주 4일 629,000원</p>	<p>무인 - 북경</p> <p>북경(북경) 1호주 4일 399,000원</p> <p>북경(북경) 2호주 4일 479,000원</p> <p>북경(북경) 3호주 4일 459,000원</p> <p>북경(북경) 4호주 5일 499,000원</p> <p>북경(북경) 5호주 2일 939,000원</p>	<p>무인 - 제주</p> <p>제주(제주) 1호주 3일 499,000원</p> <p>제주(제주) 2호주 3일 699,000원</p> <p>제주(제주) 3호주 3일 649,000원</p> <p>제주(제주) 4호주 3일 2,190,000원</p> <p>제주(제주) 5호주 3일 2,190,000원</p> <p>제주(제주) 6호주 3일 3,490,000원</p> <p>제주(제주) 7호주 3일 549,000원</p>
---	---	---	---